

## 해설, 예시 답안, 평가 기준

### ■ 문항 1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문항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법과 정치, 사회, 윤리와 사상,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선거, 민주정치와 선거제도, 정치 참여의 의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출제 근거

#####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법과 정치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나) 정당의 기능과 의의를 파악하고 선거 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다)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하여 파악한다.	문항1 논제,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사회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③헌법에 규정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주권자로서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문항1 논제, 제시문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6) 도덕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윤리와 사상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다. 학습 내용별 성취	(4) 사회 사상 (다)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	문항1 논제, 제시문

	기준	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 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독서]	(4)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항1 문제 유형
	[작문]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문항1 문제 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 I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독서]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문항1 문제 유형
	[작문]	(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문항1 문제 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화법과 작문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설득]	(22) 주장하는 내용과 관점이 명료하게 글을 쓰며 글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문항1 문제 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 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독서와 문법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내용		관련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15)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른다.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항1 문제 유형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	2014	62, 69	(가)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4	63, 71-72	(가)	○

법과 정치	박영경 외	비상교육	2014	59, 60	(가)	○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58	(가)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4	55	(가)	○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2014	47	(가)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52-53	(가)	○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4	251, 255-256	(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232-233	(다)	○
윤리와 사상	김선욱 외	금성	2014	220-223	(다)	○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4	183-184	(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208-209	(다)	○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	2014	75	(다), (라)	○
법과 정치	박영경 외	비상교육	2014	70	(다), (라)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4	71	(라)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4	74-76	(마)	○

나.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문학과지성사	1999	189-190	(가)	○
88만원 세대	우석훈	레디앙	2007	79-101	(나)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쉐넬	김영사	2010	341-371	(다)	○
“잇힌 이들이 다시는 안 잊히게...”(신문기사)		헤럴드경제	2016.11.10.	기사 전체	(라)	○
분노사회	정지우	이경	2014	68-85	(마)	○

3. 출처 의도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와 현실 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고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제되었다. 민주 정치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머지않아 투표권을 갖게 될 학생들이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 자신의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와 같은 일련의 정치적 현상에서 보듯 최근의 투표 성향은 자신의 소속 집단(직업군, 계층, 세대 등)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전자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험생들에게 선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투표 행위에서 자신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논해보도록 논제를 구성하였다. <청년의 당> 쪽 선택지는 청년 세대에 속한 수험생들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 행해질 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당면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그 이유를 논술하도록 제시되었다. <모두의 당> 선택지는 비록 청년 세대의 일원이지만 청년 세대의 현안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층, 성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당의 후보를 선택할 경우 그 이유를 논술하도록 제시되었다.

선거를 포함한 정치 참여는 고등학교 『법과 정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고 청년세대의 당면한 문제는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또한 익숙한 사안이어서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원론적인 논의와 현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자신의 주장과 적절히 결부시키는 논리적 능력이 있으면 설득력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제시문 (가)는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선거의 기능, 선거를 포함한 정치 참여의 역할과 방법 등에 대해 다룬 글이다. 밀(J. S. Mill)의 주장을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등학교 교과서들 통해 선거의 기능과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은 투표의 방향을 결정하기 이전에 왜 투표를 해야 하는가에 서술하고 있으므로 어느 당을 선택하든 양쪽 모두의 논거로 쓸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오늘날 청년세대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다룬 글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각박해짐에 따라 세대 내 경쟁이 아닌 세대 간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세대 간 경쟁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청년세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청년의 당’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선거나 투표와 같은 정치 행위가 단지 눈앞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선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의로운 사회란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고민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는 연대 의식과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즉 동료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단지 경제적 이익의 재분배 문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공동선의 가치를 모색하는 정치 행위가 필요하다, 이 제시문은 ‘모두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서 ‘잇힌 이들’ 혹은 ‘수줍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양자의 투표 모두 투표 전 예상 및 여론조사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잇힌 이들과 수줍은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전에 이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아니었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결정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례는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 세대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줄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으므로 ‘청년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집단이기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공공의 보편적 이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제시문이다. 집단은 보편적 인간 개념이 아니라 집단적 차별 개념을 통해 존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 간 이익다툼을 불가피한 일면이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보편적 이익마저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총기 소지와 관련하여 전미 총기 협회가 법률 제정과 폐기에 압력을 행사하고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집단의 합리적 요구와 이기주의 사이에 놓인 벽은 그리 두터운 것이 아니다. 협소한 집단 정체성을 넘어서 그보다 더 넓은 총체적인 ‘전체 지평’을 고려하는 투표 행위가 중요하다. 이 제시문은 ‘모두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5.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청년의 당’ 후보와 ‘모두의 당’ 후보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생각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쪽을 선택했는지를 제시문 (가)

~ (마)에서 두 가지 이상의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하는 내용(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 <청년의 당> 후보를 선택한 경우:

청년의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20대는 이전의 한국사회와는 다른 환경 속에 놓여 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는 유례없는 승자독식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경쟁의 한 가운데서 20대는 '세대 내 경쟁'뿐만 아니라 '세대 간 경쟁'에도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년 세대 전체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금 20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밀(J.S. Mil)의 말처럼 권리와 이익은 그것을 위해 싸울 능력이 있고 항상 싸우려고 할 때만 무시되지 않을 수 있다.

청년의 당 후보에게 투표할 이유는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경향과 같은 해외의 최근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두 투표에서는 '수줍어하는 이들'과 '잇힌' 이들이 결과를 좌우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던 숨은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했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청년들 역시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알릴 필요가 있고 힘을 모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 낼 수가 있다.

물론 청년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공동선을 소홀히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장차 우리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단순히 특정 집단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그들이 불안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 낳기를 꺼린다면 출산율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그들 부모 세대의 부양 문제도 심각해지고 결국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빈칸 포함 1,004자)

**\* <모두의 당> 후보를 선택한 경우:**

민주 사회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모두의 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맥킨타이어의 말처럼 한 명의 개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며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 사적 이익의 영역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의 작동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며 공적인 영역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시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며 공동선을 추구할 때 형성된다.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두의 당은 공적인 영역을 만들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가 초래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모두의 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미국의 이익집단인 전미 총기 협회는 로비를 포함한 각종 활동을 통해 총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백지화시키기도 하고 특정 대선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집단의 이익은 보호될 수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이 총기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계층, 지역 이기주의가 많은 폐해를 일으켜 온 결과를 보더라도 특정 집단의 정치행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소집단이 보다 넓은 차원의 전체 지평과 관계를 맺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세대 간 무한경쟁에 돌입한 현실에서 약자인 청년 세대가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각박해진 현실에서 청년 실업, 결혼, 육아 등 젊은 층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은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자녀이고, 머지않아 그들 역시 기성세대가 된다. 이처럼 한 세대는 다른 세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의 문제 역시 사회 전체의 문제 속에 위치시키고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칸 포함 1,004자)

**※ 논거 참고 자료**

1.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로 제시문에서 다음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
2. 각 내용은 유사한 것끼리 함께 제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3. 예상되는 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해야 하고 재반박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단, 답안 전체의 논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고 이미 다른 내용의 단순 반복은 아니어야 함.

**\* <청년의 당>을 지지하는 논거 예시**

(가)

-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은 자신을 그것을 위해 싸울 능력이 있고 항상 싸우려고 할 때만 무시되지 않을 수 있다.
-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한다.
-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여 이를 정책 결정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나)

-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었다.
- 오늘날 경쟁의 양상은 ‘세대 내 경쟁’이 아닌 ‘세대 간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오늘날의 경쟁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보호막’이나 ‘중재자’가 없다.
- 20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다.
- 20대의 요구가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잇힌 이들’ 혹은 ‘수줍은 이들’이 브렉시트 탈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 이전의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투표를 통해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 투표를 통해 ‘아웃사이더’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 ‘침묵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를 통해 관철시켰다.

\* <모두의 당>을 지지하는 논거 예시

(가)

-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일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한다.
-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나 요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여 이를 정책 결정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

- 내게 이로운 것은 나의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우야 한다.
- 정의로운 사회란 결국 좋은 삶이 무엇인가를 다 같이 고민하는 사회이다.
-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고, 더불어 그런 문제를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를 구상하는 일이다.
- 만약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동료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한다.
- 공동선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적 이익의 분배만을 고려하는 견해만으로는 수립되기 어려운 바람직한 정책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마)

- 집단주의는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집단적 차별 개념을 통해 존재한다.
- 민주사회에서 집단 간 이익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면이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마저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최근 한국사회에도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보편적 공익에 앞세우는 것이다.
- 각종 집단이기주의 속에서 사회는 사라지고 서로 분투하고 경쟁하는 집단들만이 남게 된다.
- 우리는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협소한 집단 정체성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더 넓은 사회적 지평과 관계 맺어야 한다.

## 6. 평가 기준 (총 60점 만점)

\*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

### (1) [기본 조건 충족]

- 제시된 분량(900자 - 1,100자)이고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문제의 논점(<다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선택사항의 핵심적인 의미)을 정확히 파악함.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첫 논거를 제시함.
- 제시문 (가)~(마)에서 1개 이상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둘째 논거를 제시함.
- 제시문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함.  
(재반론은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 반론-재반론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음.)

(2) [논리성 - 가점]

- 다음의 경우 가점(+).

- <제시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거를 심도 있게 서술함.
-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탁월함.

(3) [형식 요소 - 감점]

- 다음의 경우 감점(-).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히지 않았거나 양쪽 모두를 선택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제시된 분량(900자 - 1,100자) 범위를 지키지 못함.

## 해설, 예시 답안, 평가 기준

### ■ 문항 2

####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진형명	논술우수자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문항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사회,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비만, 사회복지, 삶의 질
예상 소요 시간	60분/ 전체 120분	

#### 2. 문항 및 제시문 출제 근거

#####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사회.문화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바) 사회 복지의 의미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 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다.	문항2 제시문(<다음>)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 사회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관련
	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①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③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문항2 제시문(<다음>)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 내용		관련
	[작문]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문항2 문제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국어II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 내용		관련
	[독서]	(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문항2 문제유형
	[작문]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문항2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문제유형
적용 교육과정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성취기준 및 내용	과목명: 화법과 작문 /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나. 세부 내용		관련
	[정보 전달]	(11)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글을 쓴다.	문항2 문제유형
	[설득]	(25) 논거의 타당성, 조직의 효과성,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고쳐 쓴다.	문항2 문제유형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	2014	164	제시문 (<다음>)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5	161-162, 166	제시문 (<다음>)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4	179-180	제시문 (<다음>)	○
사회·문화	이진식 외	지학사	2014	160-163	제시문 (<다음>)	○
사회·문화	강운선 외	미래엔	2014	155	제시문 (<다음>)	○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81-84	제시문 (<다음>)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77-78	제시문 (<다음>)	○
사회	설동훈 외	미래엔	2014	71-72	제시문 (<다음>)	○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4	76	제시문 (<다음>)	○

나. 교과서 외

자료명	발행처	관련자료	재구성여부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자료1>	○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자료2>	○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자료3>	○
2014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자료4>	○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자료5>	○
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자료6>	○

### 3. 예시 답안

1) 성인의 소득 수준별 비만율과 그 격차는 <자료 1>을 보면 알 수 있다. 2011년과 2014년 모두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비만율이 높다. 두 집단 간의 비만율 격차는 2011년 0.7%p에서 2014년 4.5%p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2) 성별 비만 인구는 성별 인구수와 비만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자료 3>과 <자료 4>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료 4>에서 2014년 성인의 성별 인구비는 남성:여성=98.2:100으로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근소하게 많다. 그러나 <자료 3>에 나온 성인의 성별 비만율 차이는 12.4%p로 남성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비만 인구가 더 많다.

3) 성인의 흡연 여부와 음주 정도에 따른 비만율의 성별 패턴은 <자료 6>을 보면 알 수 있다. 전체 흡연자 집단에서 과다 음주 집단의 비만율은 적정 음주 집단보다 높다. 여성의 경우 흡연자 집단의 비만율은 적정 음주 집단보다 과다 음주 집단에서 낮으므로, 전체 흡연자 집단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성별은 여성이다. 여성만을 놓고 볼 때 적정 음주 집단의 경우 흡연자 집단의 비만율이 비흡연자에 비해 높지만, 과다 음주 집단의 경우에는 반대로 흡연자 집단의 비만율이 비흡연자에 비해 낮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흡연 여부는 음주 수준에 따라 비만율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빈칸 포함 697자)

### 4. 출제 의도

[문항 2]는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였는지를 점검하고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사회·문화, 사회 교과서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질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국민의 건강 상태, 그 가운데에서도 비만에 관한 자료에서 소득 수준별, 성별, 생활 습관별 비만 현황과 다양한 집단 간 차이를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오늘날 삶의 질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건강은 그 중 한 부분으로 건강 취약 집단을 선별하고 보건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순환기계 질환, 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가적, 개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논술문제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 5. 자료 해설

자료는 크게 비만율과 소득 수준, 인구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비만율 자료는 2011년과 2014년으로 구분하여 소득 수준별, 성별, 생활 습관별로 나열하였다. 소득 수준별 비만율은 <자료 1>, 성별 비만율은 <자료 3>, 생활 습관별 비만율은 <자료 5>와 <자료 6>에 있다. 이 중 소득 수준별 비만율과 성별 비만율은 2011년과 2014년이 동시에 나와 있지만, 생활 습관별 비만율은 2014년만 나와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자료 1>의 각 셀에 나와 있는 값은 비만율이다. 소득 수준을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연도를 2011년과 2014년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 <자료 2>의 각 셀에 나와 있는 값은 평균 소득이다.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누어, 2011년과 2014년의 각 분위별 평균 소득을 표시하였다.
- <자료 3>의 각 셀에 나와 있는 값은 비만율이다. 성별을 남성·여성으로 구분한 후, 연도를 2011년과

2014년으로 나누어 각각의 비만을 보여주고 있다.

- <자료 4>의 각 셀에 나와 있는 값은 인구수와 인구의 성비이다. 그리고 이를 2011년과 2014년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전체 인구나 성인으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수를 뜻하므로, 그 값이 100보다 작으면 남성 인구수가 적고 100보다 크면 남성 인구수가 많은 것을 뜻한다.
- <자료 5>의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비만율이다. 왼쪽 그래프는 집단을 성별로 구분한 뒤 흡연 여부에 따라, 오른쪽 그래프는 집단을 성별로 구분한 뒤 음주 수준에 따라 비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자료 6>의 각 셀의 값은 비만율이고 연도는 2014년이다. <자료 5>는 흡연 여부와 음주 정도 각각의 변수에 따라 비만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자료 6>은 흡연 여부와 음주 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비만율을 나열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 6. 논제 해설

[문항 2]는 세 가지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소득 수준과 비만의 관련성 및 그 경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비만 인구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음주와 흡연, 비만의 관계를 분석한다.

### (1) 소득 수준과 비만의 관련성 및 그 경향성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료 1>을 이용한다. 2011년과 2014년 두 개 년도에 대해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은 낮고, 2011년에서 2014년으로 시간이 변화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인구나 낮은 인구의 비만 격차는 커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만율은 감소하고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상’ 집단의 비만율은 ‘하’ 집단의 비만율보다 0.7%p 낮다. 2014년 기준으로 ‘상’ 집단의 비만율은 ‘하’ 집단의 비만율보다 4.5%p 낮다.
- 2011년 대비 2014년 소득 수준이 높은 ‘상’ 집단의 비만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하’ 집단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어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 (2) 성별 비만 인구의 차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료 3>과 <자료 4>를 이용한다. 2014년 현재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성비는 98.2:100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만율은 37.7%:25.3%로 크게 차이난다. 따라서 남성의 비만 인구가 여성의 비만 인구에 비해 많다.

- <자료 4>에 나열된 성인의 성비(남성 인구나 여성 인구의 비율)와 <자료 3>에 나열된 성인의 비만율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비만 인구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정답이 ‘남성’이라는 것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자료 4>의 성인 인구수와 성인 성비를 이용하면 남성과 여성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고(남성: 약 20,141천 명, 여성: 약 20,511천 명), 각각의 성인 인구에 성별 비만율을 곱하면 성별 비만 인구를 구할 수도 있다(남성: 약 7,593천 명, 여성: 약 5,189천 명). 이와 같은 계산은 어느 성의 비만 인구가 높은지를 판단만 하는 데는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정답으로 처리한다.

### (3) 음주와 흡연, 비만과의 관계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료 6>을 이용한다. 흡연자 집단에서 음주 수준별로 비만율의 패턴이 전체

집단과 다른 성은 '여성'이다. 여성의 경우, 걱정 음주를 할 때 흡연자의 비만율(26.3%)은 비흡연자의 비만율(25.0%) 보다 높고, 과다 음주를 할 때 흡연자의 비만율(15.8%)은 비흡연자의 비만율(27.2%) 보다 낮다.

- ① 흡연자에 한정하여 음주 수준과 비만율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 전체 집단과 남성 집단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전체 집단과 여성 집단은 다른 패턴을 보인다.
  - 전체 흡연자 집단의 음주 수준에 따른 비만율: 걱정 음주(30.7%) < 과다 음주(38.1%)
  - 남성 흡연자 집단의 음주 수준에 따른 비만율: 걱정 음주(31.3%) < 과다 음주(42.0%)
  - 남성 흡연자 집단의 음주 수준에 따른 비만율: 걱정 음주(26.3%) > 과다 음주(15.8%)
- ② 여성에 한정하여 음주 수준 별로 흡연 여부와 비만율을 살펴볼 경우, 걱정 음주를 하면 흡연과 비흡연은 비만율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과다 음주를 하면 흡연과 비흡연은 비만율과 부(-)의 관계를 보인다.
  - 걱정 음주 집단의 흡연 여부에 따른 비만율: 비흡연(25.0%) < 흡연(26.3%)
  - 걱정 음주 집단의 흡연 여부에 따른 비만율: 비흡연(27.2%) > 흡연(15.8%)

※ 관련이 없는 자료

- <자료 2>의 소득 분위별 소득은 소득 수준별 비만율을 유추하는 데 필요가 없는 자료이다.
- <자료 5>만을 이용할 경우, 흡연자 집단의 음주 수준별 비만율을 유추할 수 없는 자료이다. 문제 3)에서 <자료 6>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했더라도, <자료 5>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 7. 평가기준

### (1) 소득 수준별 비만, 소득 수준별 격차의 심화 근거 → 총 10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아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감점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 1	10점	- 2011년 기준의 비만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32.2%)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31.5%)에 비해 높음.
		- 2014년 기준의 비만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33.8%)이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29.3%)에 비해 높음.
		- 2011년의 격차는 0.7%p, 2014년의 격차는 4.5%p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커짐.
		- 혹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비만도는 1.6%p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만도는 2.2%p 낮아지므로 격차가 커짐.
		- 가점: 논리성 <sup>1)</sup> 과 형식 요건 <sup>2)</sup>

- 1) 논리성: 구체적 분석, 자료와 주장 사이의 설득력 있는 연결, 정확한 개념, 글의 체계적 구성
- 2) 형식 요건: 정확한 단위(예를 들어, 인구수, %p 등),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2) 비만 인구가 많은 성별 찾기, 그리고 그 근거 → 총 10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아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감점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 4	10점	- 성비가 100 미만이므로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근소하게 많음. ※ 아래의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근거 없이 성비 근거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왜냐하면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다는 것은 남성의 비만 인구가 여성보다 많다는 것의 반대되는 증거이기 때문임.
자료 3		- 남성의 비만율(37.7%)이 여성(25.3%)보다 12.4%p 더 높음.
자료 3 자료 4		- 성비로 인한 인구 차이보다 비만을 차이로 인한 비만 인구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남성의 비만 인구가 여성의 비만 인구보다 더 많음.
		- 가점: 논리성과 형식 요건

※ 본 문제는 남성 비만인구와 여성 비만인구의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느 성별의 인구가 더 많은지만을 묻고 있음. 따라서 남성의 비만 인구는 7,593천 명\*이고, 여성은 5,189천 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  $40,652 \times (98.2 \div 198.2) \times 37.7\% = 7,593$

\*\*  $40,652 \times (100 \div 198.2) \times 25.3\% = 5,189$

※ 성인 전체 인구수 40,652천 명은 남성과 여성에게 공히 적용되는 숫자이므로, 전체 인구수를 보여주지 않고 ①성비와 ②성별 비만율만 제시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음.

**(3-1) 음주 수준에 따른 비만도가 전체 흡연자 집단과 다른 패턴 보이는 성별 찾기 → 총 10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자료를 언급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 6	10점	- 전체 흡연자 집단에서 음주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만율도 증가(30.7%→38.1%)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여성 흡연자 집단에서 음주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만율이 감소(26.3%→15.8%)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전체 흡연자 집단과 여성 흡연자 집단에서 음주 수준에 따라 비만을 증감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언급함.
		- 가점: 논리성과 형식 요건

※ <자료5>를 사용하여 설명한 답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왜냐하면 본 문제는 흡연자 집단만을 기준으로 음주 수준에 따른 비만도를 분석하는 것인데, <자료5>는 음주 수준과 흡연 여부 각각 남성과 여성의 비만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 효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3-2) 음주 수준별 흡연 여부와 비만도의 관련성 설명하기 → 총 10점**

- 아래와 같이 자료에 바탕을 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자료를 언급하지 않거나 다른 자료를 언급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근거	배점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자료 6	10점	- 여성을 대상으로 적정 음주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비만율이 증가 (25.0%→26.3%)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여성을 대상으로 과다 음주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비만율이 감소 (27.2%→15.8%)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음주 수준별로 흡연 여부가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라는 사실을 서술함.
		- 가점: 논리성과 형식 요건

※ 본 문제는 ‘음주 수준별로 흡연 여부가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라는 것인데, ‘흡연 여부별로 음주 수준이 비만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답으로 인정할 수 없음. 즉 본 문제는 가로축인 음주 수준을 하나씩 고정한 상태에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비만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반대로 세로축인 흡연 여부를 고정한 상태에서 적정 음주와 과다 음주의 비만율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임.